

##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의결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은 지난 10월 30일 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제3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은 지난 10월 30일 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박종학 대한설비건설협회 명예회장, 국토교통부 광민희 건설인력기재과장을 비롯해 전국 대의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조합원 운영위원 선임(안)은 운영위원장단에 위임했다.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은 이날 총회에서 2014년 경영목표를 “최고 가치를 제공하는 보증·공제기관”으로 하고, △조합원 가치증진 △보증·공제사업 최적화 △미래 성장기반 강

화 △선진 경영시스템 구축 등의 추진사업을 발표했다. 또한 건설경기 장기침체 등으로 인한 조합원사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2014년도 예산에 대해, 긴축재정 운영을 기조로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예산 및 경비 삭감 △조합원 업무지원 예산 편성 △효율적 조합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을 했으며, △302억원의 수익을 목표로 8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추정했다.

한편 이날 총회는 이사장의 공석중이어서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정해돈 운영위원장[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이 임시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했다.



정해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조합은 조합원사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 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해돈 의장 개회사 “조합 제도개선과 경비절감 등 적극 추진”

이날 총회의 임시 의장을 맡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정해돈 운영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조합은 미래 건설산업의 성장기반에 필요한 조합원사의 보증 및 금융관련 지원에 더욱 노력하고 있다”면서 “특히 조합원사의 해외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해외건설공사 보증서 발급 확대를 비롯한 선급금 공동관리기준 완화, 선급금의 인터넷 보증 서비스 확대 등 조합원사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 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해돈 의장은 또한 “그동안 조합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TF팀을 구성하여 경영환경 제도개선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많은 예산감축 효과를 거뒀다”면서 “조합 제도개선과 경비절감 등을 적극 추진하신 감사·운영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조합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해돈 의장은 “조합은 신용평가의 변별력 강화와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신용평가 신 모형 개발을 추진했으나, 45%에 이르는 조합원사의 신용등급 하락과 이에 따른 증자 및 보증수수료 부담이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향후 3개년 이상의 시뮬레이션 자료를 확보하고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보완하여 시행시기를 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업무보고

한편 이날 총회에서 조합은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시행
- 해외건설공사 보증서 발급 확대
- 선급금보증 인터넷보증 확대 시행
- 선급금공동관리 기준 완화
- 통합출력보증서 발급 시행
- 계약보증 약관 개정 